

그래피티아트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Recognition of Graffiti Art

주 저 자 : 김문석 (Kim, Moon Seok)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kms@kw.ac.kr

Abstract

Recently, graffiti art has not only been recognized as a form of art, but also as a public art and has been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through art collaboration. However, perspective of society regarding graffiti is not quite positive. Although there are full-time graffiti artists, many others are criticized as they do illegal graffiti activities or illegal tag. This study analyzed press reports about awareness of graffiti in Korean society reported in newspape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over the past three years. According to analysis many has shown a lot of interest in graffiti artists and exhibitions. In particular, it has also been utilized in public art and some for industrial purpose. Nevertheless, most of views on current events in Korean society towards graffiti were negatively analyzed. Given that graffiti is commonly used to reinforce cultural competitiveness in many other countries, it seems necessary to speed up the improvement of the perception of graffiti art in Korean society as well.

Keyword

Graffiti Art(그래피티 아트), Social Recognition(사회적 인식), Gentrification(젠트리피케이션)

요약

최근 그래피티 아트는 예술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미술로 활용되기도 하고 아트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상업적 용도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래피티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래피티를 전업으로 하는 작가들도 있기는 하지만 불법적인 그래피티 활동을 하거나 불법 태그(Tag) 활동 등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들도 다수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신문, 방송, 통신 언론에 보도된 그래피티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언론보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그래피티 아트 작가 및 전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공 디자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 산업적 측면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그래피티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사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세계적인 여러 도시에서 도시의 문화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래피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사회에서도 그래피티 아트에 대한 인식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 1-2. 연구 목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그래피티 아트
- 2-2. 그래피티와 사회인식
- 2-3. 젠트리피케이션과의 관계

3. 그래피티의 언론보도 사례

- 3-1. 긍정적 측면의 그래피티 보도 사례
- 3-2. 부정적 측면의 그래피티 보도 사례
- 3-3. 해외의 그래피티 보도 사례

4. 그래피티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

- 4-1. 분석방법과 범위
- 4-2. 그래피티 언론보도 기초분석
- 4-3. 그래피티의 사회적 시선분석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그래피티 아트(Graffiti art)는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그래피티(Graffiti)의 어원은 '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Graffito'와 그리스어 'Graffito'이다. 분무기(스프레이)로 그려진 낙서 같은 문자나 그림을 뜻하는 말로 'Spraycan Art' 'Aerosol art'라고도 한다. 유럽에서는 '거리의 예술(Street Art)'로서 자리를 잡았다. 기원은 고대 동굴의 벽화나 이집트의 유적에서 볼 수 있는 낙서에 가까운 그림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피티가 예술로서 등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사이 톰블리(Cy Twombly)·잭슨 폴록(Jackson Pollock) 등은 낙서의 표현법에 관심을 보였고 장 뒤뷔페(Jean Dubuffet)는 아웃사이더 아트로서의 낙서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였다.

현대 그래피티는 1960년대 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콘브레드(Cornbread)와 쿨 얼(Cool Earl)이라는 서명(Tag)을 남긴 인물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뉴욕의 브록스 거리에서 낙서화가 범람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처음에는 반항적 청소년들과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등과 같은 소수민족들이 주도했다. 분무 페인트를 이용해 극채색과 격렬한 에너지를 지닌, 속도감 있고 도안화된 문자들을 거리의 벽에 그렸다. 이것들은 즉흥적·충동적이며 장난스럽고 상상력이 넘치는 것들이었다.¹⁾

그래피티 아트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긍정과 부정으로 동시에 인식되어 진다. 그래피티의 예술성 논란에 있어서 찬성론자들은 그래피티를 예술로 인정한다. 그래피티 아티스트 작품들을 미술관 등에서 전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키스 해링 등의 유명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의류나 식음료 등의 상품 디자인이나 광고, 슬로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그래피티는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그래피티 아트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또한 존재한다. 그래피티 아트는 원래 본연의 의미인 반달리즘과 반항 정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의 뒷골목이나 담벼락 등에 무분별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이는 알아보기 힘들고 지저분한 낙서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피티는 시작 단계부터 주류 예술이 아니었다. 이는 그래피티의 저항의 역사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기본적인 저항의식, 불법적으로 담벼락에 그리는 행위에서 기인한다. 예술적이기보다는 공공을 훼손하고 자신의 흔적과 영역을 태그(Tag)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 말하는 '멋있는 그림'으로서의 그래피티가 아닌 그저 그런 낙서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래피티의 양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를 통해 그래피티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살펴봄으로써 그래피티 아트의 사회·문화적 가능성 등을 조망한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그래피티아트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의 주제에 따라 그래피티 아트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수준과 그에 따르는 긍정 및 부정적 견해에 대하여 설문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중요 포인트로 삼는다.

연구의 과정은 먼저 그래피티 아트에 대한 개요 및 이해에 대한 학술조사를 한다. 또한, 그래피티 아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본론에서는 그래피티 아트의 사회적 이중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사례조사 등을 한다. 이론적 고찰 및 사례조사에 따르는 내용을 기반으로 언론에 나타난 그래피티 관련 기사를 검색하여 기초조사를 한다.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그래피티 아트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여 그래피티 아트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수준을 밝히며 향후, 그래피티 아트의 예술로서의 의미 및 긍정적·부정적 사회문제 유발 요소 및 발전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조망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그래피티 아트에 대해 향후 우리사회에서 그래피티 아트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와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그래피티 아트

그래피티 예술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나 잠재된 의식에 대한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의사를 벽에다 표출하여 자신을 찾아가는 소통의 수단으로

1) terms.naver.com/entry.nhn?docId=1198764&cid=40942&categoryId=33050, 2019. 11. 1.

서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피티는 최초 인류의 문명이 시작한 시기로부터 뿌리를 내린 인간의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기호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의사소통의 행위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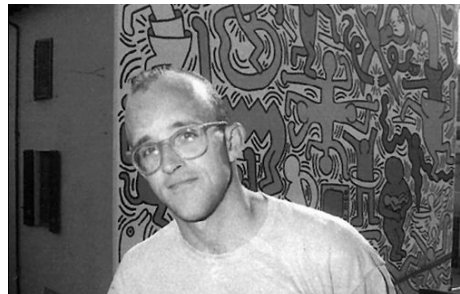
인류 최초의 회화로 원초적인 표시의 방식으로 삶의 흔적을 노출된 벽에 나타내므로 적극적인 의사 전달 방법이라 하겠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낙서라는 행위가 구체화 되고 예술사에서 신표현주의가 나타나므로써 그래피티는 모든 그래피티로서 본질적인 개념이 정립되었다.²⁾ 현대 그래피티는 일반적으로 산업의 발전으로 에어 스프레이가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부터 크게 유행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보수성을 탈피하여 현장에서 호흡하고 마주치는 대면 예술로의 그래피티가 기성문화에 저항적인 정신이 담긴 흑인들 중심의 힙합 문화가 성행하게 되면서 기성문화의 지루함에 반발하는 젊은 층의 기대와 부합되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낙서라는 행위가 시대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변화하고 구체화 되면서 그래피티의 개념이 확립되었다.³⁾

예술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기에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에서의 예술은 문화의 힘을 가진 주체로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을 흡수하기 위한 예술계의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래피티 아트는 미술이 지닌 난해함을 허물고 소통적 역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래피티 아트는 그것이 지닌 개방적이고 저항적인 성향으로 인해 사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⁴⁾

2-2. 그래피티와 사회인식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친 그래피티의 등장은 예술에 있어서 낙서가 갖는 사회성, 대중문화의 충을 실감시키며 현대미술과 대중문화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켰다.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부터 뉴욕의 이스트빌리지(East Village)에서는 앞서가는 대안적인 문화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래피티는 이러한 이스트빌리지의 대안적 문화와 함께 1980년 <타임스 스퀘어 쇼(Times Square Show)>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된다. 이 타임스 스퀘어 쇼에서 주목을 받으며 문제작가로서 매스컴에 제기되면서 유명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게 된 작가로는 키스 해링(Keith Haring)과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를 들 수 있다.⁵⁾ [그림 1], [그림 2] 참조



[그림 1] 키스해링(Keith Haring)

www.haring.com, 2010. 11. 2.



[그림 2]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

출처 : www.bbc.co.uk, 2010. 11. 2.

그래피티는 초기에 인종주의·고립·환경오염·경제성 상실 같은 사회 비판에 뿌리를 두었지만, 최근 1980년대를 걸쳐서 뒷골목 범죄자들의 낙서로 폄하되던 지위를 벗고 유럽과 미국 도시에서 친숙한 거리 미술로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⁶⁾ 그래피티

- 2) 양재희, 동·서양 그래피티 예술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12.
- 3) 한승연, 그래피티 아트의 상업적 활용사례 분석을 통한 조형적 특성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17.
- 4) 권예송, 반문화적 속성을 통해 본 그래피티 아트의 사회적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 2.

- 5) 김태희, 패션에 나타난 디지털 그래피티의 특성과 창조적 표현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9.

의 문화·사회적 의미, 혹은 특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 비판 의식을 가장 많이 거론한다. 실제로 20세기까지의 그래피티의 정체성은 저항, 도전, 비판 의식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970년~1980년대에는 그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기성의 권위나 제도에 대한 저항과 도전, 비판 의식이 그래피티의 핵심 정체성이 된 것은 태동기의 문화적, 민족적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래 행동주의 미술을 대표한다고 할 만한 그래피티는 1960년대 말부터 미국 내에 고조되었던 흑인 인권 운동과 보조를 맞추면서 태동·성장하고 전개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 거주하던 흑인 및 소수 민족들은 1846~1848년의 미국-멕시코 전쟁, 1848년의 과달루페히달고 조약⁷⁾ 등과 같은 일련의 정치·외교적 상황에 의해, 혹은 개인적,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미국으로 대거 건너 왔다. 이들은 입국 당시의 희망과는 정반대로 다인종의 미국 사회가 지닌 인종 차별,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 백인 중심 구조 하의 계급 탄압 등에 직면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⁸⁾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그래피티가 도입되었다. 당시 그래피티는 대중들과 미술 전문가들에게 미술에 있어서 하나의 하위문화나 대표적인 힙합 문화의 주류로 인식되었다.

그래피티의 본질적, 태생적인 특성상 한국에서도 해외에서처럼 주류 문화로 진입하지 못하고 ‘서브 컬처’로 인식되고 성장하게 된 것이다. 한편, 힙합 문화적 요소는 1980년~1990년대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현대 그래피티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의 초기 그래피티가 힙합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인식된 데에는 당대 한국 문화계의 특성과 상황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 소개·도입된 힙합은 대단히 빠른 시일 내에 대중문화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기존 문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을 주는 힙합의 자유분방함과 멋스러움에 매료되어 모든 방면에서 힙합을 내걸면서 자신들의 개성과 끼를 마음껏

표출하였다.⁹⁾

도시민의 소외·불안·고독을 표현하고, 그를 통해 도시의 실존과 실체, 도시 문화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래피티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기능인데, 현대 사회와 현대 문화의 다원성,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주목해야 할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그래피티의 상징이자 핵심처럼 여겨지는 도전 정신, 비판 의식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도시민의 실존적 고독과 허무감, 도시의 실체 등을 드러내는 기능 등에 대해서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⁰⁾

2-3. 젠트리피케이션과의 관계

그래피티 아트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지역의 대다수는 그래피티 아트로부터 시작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초기 개념은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uth Glass)에 의해 확립되었다. 글래스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1960년대에 영국의 런던 도심에서 목격된 중산층의 증가를 바탕으로 런던의 주택 및 계급투쟁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개념은 주로 부유층이 특정 지역에 거주한 저소득층의 공간을 취득하는 현상으로 묘사된 바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1964년 부터 임대에서 소유로의 변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중산층 이주자들로 인한 근로자층 점유자들의 이동 문제를 포함한 뚜렷한 도시 변화의 과정이 함축된 용어로서 쓰이기 시작했다.¹¹⁾

그래피티 아트는 특별히 문화적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이 쇠퇴된 도심 지역에 이주하면서 자본이 잇따라 투입된 현상을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홍대나 성수동 같은 지역에서는 예술가들로 인해 문화 공간과 예술적 분위기 등 지역 특색이 형성되고 유동 인구와 자본이 유입되어 임대료가 상승했다. 문화적 젠트리피케이션은 외국에서는 "Art-led" 또는 "Culture-led Gentrification"의 용어로 쓰이고 있고 예술 주도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불린다. 뉴욕시의 소호(Soho)에서 일어난 변화가 고전적인 사례로 간주

6) 한승연, Op. Cit., p.14.

7) 임상래, 미국-멕시코 전쟁의 이해 : 간과 된 성격들과 멕시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24권 3호, 2011, p. 109.

8) 김인선,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의 전환점, 역사와 경계, 2012, p. 75.

9) 김영대 외, 한국 힙합 : 열정의 발자취, 한울, 2008, pp. 8~9.

10) 김기림, 한국 그래피티의 전신 공간 변화 및 그 의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32.

11) Slater, Tom, Gentrification of the city, The New Blackwell Companion to the City 1, 2011, p. 571.

되어왔다.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동네의 예술적 요소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홍보 또는 도시의 재개발 계획에 종종 포함되어왔다. 이러한 현상에서 예술가는 젠트리리로 인식되거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가들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적당한 가격대가 책정된 새로운 장소를 모색하게 되는데 오래된 산업건물과 같은 공간이 제공하는 특성과 경험이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서 종종 목격된 예술가 공간의 전치는 예술 기반의 경제 발전 전략에서 집중할 핵심 부문으로 채택되는 경향을 보였다.¹²⁾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등장한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은 도시 개발의 형태가 신도시 건설과 도시 팽창에 집중되어 있었고 급속한 도시화 현상에 따른 역사적 주택의 감소로 서구와 같은 고전적 젠트리피케이션이 쉽게 목격되지 않았다고 제시되었다.¹³⁾

3. 그래피티의 언론보도 사례

3-1. 긍정적 측면의 그래피티 보도 사례

2019년 경기문화재단의 동두천 캠프보산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캐버스가 된 지하철 교각 바닥면 그래피티 아트 수놓다>라는 제목으로 그래피티 아트를 보도했다. (경기일보, 2019. 10. 15) 다음은 보도내용의 일부이다.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미술관과 동두천시의 공동협력 프로젝트인 동두천 공공예술 기획 사업은 ‘동두천 K-Rock 빌리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선보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서 한국을 비롯한 태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18명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거리의 미술이다.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재단이 올해 지역문화교육본부 개소로 경기북부의 문화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지하철 교각 바닥면의 유휴공간을 이용한 환경작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는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회색 콘크리트 교각과 불법주차공간으로 활용되던 공간을 거리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

다. 기존에 볼품없었던 지하철 교각하부 공간과 방치됐던 상징조형작품은 새로운 볼거리로 재탄생돼, 거리 곳곳의 건물들이 색색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미군 기지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낼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공미술로 확장될 전망이다. 재단 관계자는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가 만들어가는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예술은 예술을 통해 지역과 교감하고 함께 어우르는 공간을 제시하는 일”이라며 “일방통행으로 전달되는 예술이 아닌 작가와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예술을 지향해, 동두천 캠프보산 그래피티 아트는 작가들의 일방적인 제시가 아닌 지역주민과 협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공공예술”이라고 전했다.¹⁴⁾ 기사의 내용과 같이 공공미술의 한 장르로서 그래피티 아트의 낙후된 사회기반을 개선하는 예술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여 보도하고 있다. [그림 3] 참조.



[그림 3] 동두천 캠프보산 그래피티 보도

출처 : www.kgnews.co.kr, 2019. 10. 15.

3-2. 부정적 측면의 그래피티 보도 사례

2018년 청계천에 전시되어 있던 베를린장벽에 한 아티스트가 그래피티를 그려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청계천 베를린장벽에 한밤중 낙서... 예술인가 범죄인가>라는 제목으로 한 언론사가 보도했다. (서울신문, 2018. 6. 10) 다음은 보도내용의 일부이다.

그래피티 아티스트는 “한국 위한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논란이 되자 계정을 탈퇴했다. 서울 중구청에서는 “경위 파악한 뒤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히며 형법상 공물 파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 장벽은

12) 이상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한 뉴욕시의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p.10~11.

13) 이선영, 닐 스미스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한국, 공간과사회, 통권 제56호, 2016, p. 214.

14) 최인규, www.kgnews.co.kr, (요약) 2019. 10. 15.

독일 베를린이 2005년 서울시에 기증한 것으로 지난밤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낙서로 훼손됐다. 예술 행위가 아니라 엄연한 문화재 훼손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티스트의 예술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래피티는 범죄 행위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베를린 광장이 서울시 중구 소요인 점을 감안하면 형법 제 143조에 따라 공용물파괴죄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 입국해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전동차에 그래피티를 남긴 영국인 20대 형제는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¹⁵⁾ [그림 4] 참조.



[그림 4]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래피티 보도

출처 : www.seoul.co.kr, 2018.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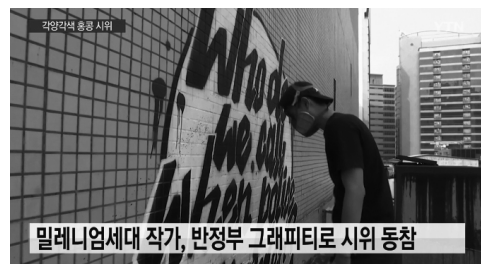
3-3. 해외의 그래피티 보도 사례

홍콩은 2019년 연일 대대적인 반중국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 현상을 YTN에서는 <진화하는 홍콩 시위...반정부 그래피티>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다. (YTN, 2019. 11. 3) 다음은 보도내용의 일부이다.

17주째를 맞은 홍콩 시위가 최근 더욱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밀레니엄 세

대 젊은 작가들은 건물과 거리를 캔버스 삼아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그래피티로 반정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정장관 직선제, 경찰 강경 진압 독립 조사 등 5대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 강도가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위 방식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거리와 건물 벽 등 곳곳에 포스터가 나붙어 반정부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고 포스터로 반중국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젊은 작가들은 건물 옥상 등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장소를 골라 낙서처럼 굵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그래피티로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경찰이 살인을 저지르면 누구에게 신고하죠?' 같은 충격적인 실상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그래피티로 주목도를 높인다. 개인 사정으로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는 10대 작가들도 단기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스프레이 등을 구매해 시위대를 지지하는 그래피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투쟁 전선에 있을 수 있고, 평화 시위를 할 수도 있고 포스터를 제작할 수도 있는 등 그래피티는 작가가 시위를 지지하는 방식이다. 그래피티 등 다양한 방식의 홍콩 시위를 주도하는 10대, 20대 밀레니엄 세대들이 또 어떤 아이디어로 지구촌에 화제를 낳으며 지지를 이끌어낼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¹⁶⁾ 위의 내용과 같이 그래피티를 활용하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5] 참조



[그림 5] 홍콩 그래피티 보도

출처 : www.ytn.co.kr, 2019. 10. 3.

15) 오달란, www.seoul.co.kr, (요약) 2018. 6. 10.

16) 이종수, www.ytn.co.kr, (요약), 2019. 10. 03.

4. 그래피티를 바라보는 한국사회의 시선

4-1. 분석방법과 범위

언론보도에 나타난 그래피티의 사회적 시선 분석을 위한 연구의 범위는 최근 3년(2016. 11. 2 ~ 2019. 11. 2)간 “그래피티”를 제목으로 다룬 보도기사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 언론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14곳)와 방송/통신(23곳)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표 1] 참조

[표 1] “그래피티” 보도 조사범위

조사 범위		“그래피티”가 제목에 포함된 언론 보도	
조사 기간		최근 3년 (2016. 11. 2 ~ 2019. 11. 2)	
조사 기관	일간지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천지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방송/통신	디지털조선TV 서울경제TV 아리랑TV 아시아뉴스통신 연합뉴스 OBS SBS SBS CNBC TV조선 YTN YTN사이언스	연합뉴스TV 채널A 한국경제TV CJ헬로 EBS JTBC KBS KNN KTV국민방송 MBC MBN MTN

4-2. 그래피티 언론보도 기초분석

연구범위 및 방법에 따라서 해당기간에 “그래피티”를 포함하는 언론 보도의 수는 경향신문 외 37개 언론사에서 총 68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참조

[표 2] 조사범위에 따른 그래피티의 기사 내용

연번	언론사	기사제목
1	YTN	진화하는 홍콩 시위...반정부 그래피티
2	연합뉴스	'갤럭시 그래피티' 즐기는 런던 삼성KX 관람객들
3	중앙일보	'깜짝갈네'...막힌 벽을 뚫는(?) 천재 그래피티 아티스트
4	서울신문	드림캐처가 멜버른 그래피티 거리로 나선 까닭은
5	연합뉴스	美시카고에 '한복 입은 미셸 오바마' 그래피티 등장
6	한국일보	미국 한복판에 등장한 유관순·안중근 그래피티
7	아시아투데이	경기문화재단 공공예술 기획사업 '동두천시 캠프보산 그래피티 아트'
8	국민일보	광복절에 독립운동가 초상 담긴 그래피티 염사 선물하세요
9	연합뉴스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들, 부산 흰여울마을서 작업한다
10	CJ헬로	그래피티 아티스트들, 영도 흰여울마을서 작업
11	연합뉴스	'이것이 그래피티 패션'
12	연합뉴스	천안서 그래피티로 되살아난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
13	연합뉴스	토마 뷔유 '그래피티 작업 중'
14	연합뉴스	지하철 벽면에 펼쳐진 그래피티
15	연합뉴스	일본 각지서 뱅크시 작품 추정 그래피티 잇따라 발견
16	연합뉴스	홍대 KB청춘마루서 토마뷔유 그래피티 퍼포먼스
17	KBS	'우산을 든 쥐' 도쿄 출현...'뱅크시'의 그래피티?
18	경향신문	경찰청에 뜬 그래피티 거장
19	국민일보	'그래피티 완성! 박수!' 거리예술가 토마뷔유
20	세계일보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글자서 영감 그래피티는 예술... 멈출 수 없어"
21	서울신문	슈퍼볼 이틀 앞두고 지워진 캐퍼닉 그래피티 누가 어떤 의도로?
22	국민일보	도쿄서 뱅크시 작품 추정 그래피티 발견...아시아 최초
23	연합뉴스	美포드사, 30년 방치된 철도역사 그래피티로 장신구 제작판매
24	국민일보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래피티로 훼손... 경찰 내사 착수
25	KBS	청계천 베를린장벽에 그래피티...“예술 아냐” 비판
26	KBS	경찰, '그래피티로 베를린장벽 훼손' 수사 착수
27	KBS	경찰, '그래피티로 베를린장벽 훼손' 화가 소환
28	매일일보	울트라 코리아 2018, 세계적 그래피티 아티스트 6팀 내한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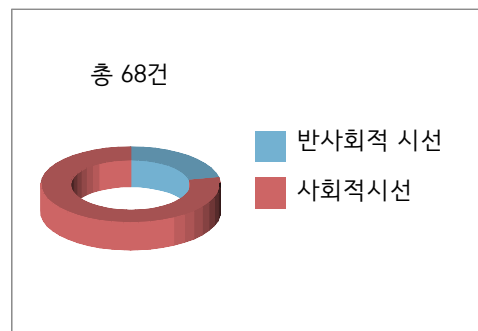
29	MBC	'낙서 폭격'에 거리 몸살...도를 넘는 그래피티
30	국민일보	청계천 베를린장벽 훼손 그래피티 아티스트 사과는 했지만...
31	MBN	독일이 서울시에 기증한 '베를린 장벽'...그래피티 아티스트가 훼손시켜
32	아시아투데이	공장 외벽이 예술 작품으로...세아, 그래피티 프로젝트 전개
33	연합뉴스	세계적 그래피티 작가의 평화기원 퍼포먼스
34	아시아뉴스통신	국내 최정상 그래피티 아티스트 닐볼트 10미터 작품...
35	연합뉴스	그래피티와 패션쇼
36	연합뉴스	영도대교 도개에 맞춰 그래피티 퍼포먼스
37	서울신문	어두침침 신촌 토끼굴, 그래피티로 재탄생
38	매일일보	강릉시, 월화거리 가로수에 그래피티 니팅
39	아시아투데이	백석대, 제1회 천안색깔무지개 참여...패브릭 그래피티 선보여
40	KTV국민방송	불법 그래피티 확산...시민 정서 해쳐
41	연합뉴스	노루페인트, '그래피티'로 서울 재생 프로젝트
42	연합뉴스	거대한 그래피티
43	연합뉴스	삼성라이온즈파크에 그려진 이승엽 그래피티
44	매일일보	그래피티아트 'K-RAFFITI 2017:THE NEW WAVE 展' 개최
45	MBN	사무엘 '그래피티 제가 그랬어요'
46	OBS	'그래피티 축제' 2017 SAAF in Korea, 8월 31일 개최
47	MBN	교통 표지판에도 그래피티 덕지덕지
48	경향신문	'증오'의 나치 스와스티카 맞서는 '유머'의 그래피티
49	KTV국민방송	거리의 예술 '그래피티'...유명 작품 눈길
50	아시아투데이	'푸마' 인도서 신발 광고 찍기 위해 '유적에 그래피티'...역사가들 '공분'
51	YTN	그래피티로 세상에 저항한 '거리 작가'
52	EPA연합뉴스	가자지구에 등장한 바르구티 그래피티
53	아시아투데이	언더아머와 스테판 커리를 위한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의 퍼포먼스
54	경향신문	지하철에 그래피티 후 출국한 호주인, 3주 만에 다시 한국에서 붙잡힌 사건
55	세계일보	새로운 농구화 '커리 3zer0'를 위한 심찬양의 그래피티 퍼포먼스
56	연합뉴스	쉐보레 스파크 그래피티 에디션 출시
57	MBN	그래피티 그려진 스피커, 명화 입힌 가방...개성 찾아요
58	아시아투데이	서울시 강남구 가로수길 '그래피티 니팅' 전시

59	서울신문	지하철에 불법 '그래피티' 호주 남성, 인천공항서 출국하다 덜미
60	연합뉴스	디뮤지엄 그래피티 프로젝트, '만도마리' 작품 공개
61	연합뉴스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할리스커피 팝업스토어
62	한국경제TV	팝핀현준, 모교에 그래피티 작품 '힙카소' 선물
63	서울신문	유명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시' 추정 CCTV 포착
64	MBN	낙서 예술,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다음달 22일 장충 체육관
65	연합뉴스	그래피티 그려진 아이스링크
66	한국일보	"예술이 된 그래피티... 세상보다 살짝만 앞서가야"
67	연합뉴스	그래피티 작가 제우스 작업현장 공개
68	YTN	'대통령 풍자 그래피티' 홍승희 씨, 재물손괴 혐의 무죄

4-3. 그래피티의 사회적 시선분석

다음 [그림 6]은 그래피티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언론의 시선에 대한 분석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분석방법은 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긍정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는 것이다. 총 68건의 기사 중 그래피티를 예술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 공공적 측면 등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바라본 보도는 53건으로 78%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그래피티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으로 보도한 기사는 15건으로 22%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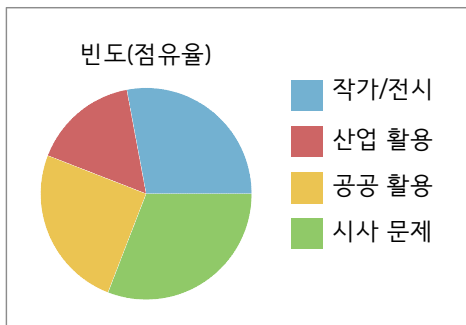
분석된 결과에 따라 그래피티 아트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6] 참조.



[그림 6] 그래피티를 바라보는 시선 분석

다음 [그림 7]은 그래피티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언론의 유형에 대한 분석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분석방법은 기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피티 아트에 대해 단순히 작가 및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했나, 산업적 측면, 공공적 측면, 시사적 문제로 다루었나 하는 것이다.

총 68건의 기사 중 그래피티를 작가 및 전시 중심으로 표현된 기사의 빈도는 19건으로 28%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에의 활용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는 빈도 11건으로 16%, 공공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는 빈도 17건으로 25%, 시사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는 빈도 21건으로 31%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된 결과에 따라 그래피티 아트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시사문제와 단순 작가 및 작품 소개 등으로 가장 많이 접근하고 있으며 공공에의 활용이나 산업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7] 참조.



[그림 7] 그래피티를 바라보는 유형 분석

위 두 가지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언론에서 그래피티 아트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긍정성을 많이 내포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아트로서의 역할이 미비하며 사회적 문제 유발 등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그래피티를 바라보는 사회적 측면의 시사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부조리 고발 및 저항의식 등을 담은 그래피티의 원천적 태생의 특징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피티를 예술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의 사회적 책임성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래피티는 본래 사회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비주류 예술 장르로 출발하였지만 현대에는 그래피티 아트의 특성인 자유, 박애, 저항, 힘합 등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매력적인 현대사회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의 수단으로서 역할과 함께 자유로운 예술 장르로서 세계인에게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선을 바라보는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그래피티 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한국의 경우 그래피티로 유명한 장소로는 홍대, 압구정, 이태원 등이 있다. 이러한 장소에서 그래피티는 다양하게 그려졌다가 시 당국이나 건물주들에게 지워지고 새롭게 그려지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그래피티의 불법적인 작업경향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피티를 "직업"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다. 이는 그래피티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그래피티를 상업적 용도나 공공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하여 그래피티는 새로운 실험적인 행위예술로 인식되어져서 특정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기도 한다. 향후, 그래피티 아트 작가 및 그래피티 유형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중요한 키워드로서 그래피티 아트를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영대 외, 한국 힙합 : 열정의 발자취, 한울, 2008.
2. 김인선,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의 전환점, 역사와 경계, 2012.
3. 이선영, 닐 스미스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한국, 공간과사회, 통권 제56호, 2016.
4. Slater, Tom, Gentrification of the city, The

- New Blackwell Companion to the City 1, 2011.
5. 권예송, 반문화적 속성을 통해 본 그래피티 아트의 사회적 특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6. 김기림, 한국 그래피티의 전시 공간 변화 및 그 의미,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7. 김태희, 패션에 나타난 디지털 그래피티의 특성과 창조적 표현 방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8. 양재희, 동·서양 그래피티 예술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9. 이상은,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한 뉴욕시의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10. 임상래, 미국-멕시코 전쟁의 이해 : 간과 된 성격들과 멕시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24권 3호, 2011.
 11. 한승연, 그래피티 아트의 상업적 활용사례 분석을 통한 조형적 특성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2. terms.naver.com
 13. www.bbc.co.uk
 14. www.haring.com
 15. www.kgnews.co.kr
 16. www.seoul.co.kr
 17. www.ytn.co.kr